

폴란드, 신임 재무장관 시장의 우려 불식에 나서

□ 신임 재무장관, 언론과의 첫 인터뷰 가져

- Belka 전 재무장관의 전격 사임으로 지난 7월 5일 후임 재무장관에 임명된 Kolodko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7월 16일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밝혔음.
- 폴란드 금융시장은 Belka 사임의 충격으로 매우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언론들도 향후 폴란드 경제의 불확실성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음. 이를 의식한 Kolodko는 전임 Belka 장관의 재정긴축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아울러 경제 구조조정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Kolodko, 적극적인 재정확대주의자로 인식돼

- Kolodko는 폴란드가 연평균 5% 이상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지난 1994~97년 중 재무장관을 역임하였으며, 당시 그는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추구했었음.
- 또한, 지난 5월에 한 언론에 기고한 논문에서도 Kolodko는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현재의 자유변동환율제를 포기하고 즐로티貨를 큰 폭으로 평가 절하한 뒤 유로貨에 연동시킬 것을 주장하였음.
- 따라서 그의 이런 정책 경향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컸음.

□ 향후 폴란드의 경제정책 방향은 아직도 불확실한 듯

- 언론과의 회견에서 시장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던 Kolodko는 금년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지난해 실적 및 금년도 계획보다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통화정책의 긴축을 의미하는 제한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하였음.
- 그의 회견 이후 즐로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폴란드 경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그가 계속 긴축기조와 개혁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대외여건이 획기적으로 호전되지 않는 한 극심한 소비와 투자부진을 겪고 있는 폴란드 경제가 현재의 침체상태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지지율 하락으로 곤경에 처한 Miller 정부는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와 중앙은행 압박을 통한 통화긴축 완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해소의 기대주로 Kolodko가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향후 폴란드 경제정책 방향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